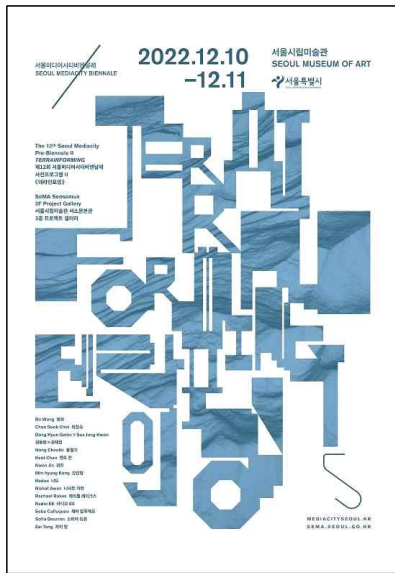


#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II 《테라인포밍》



제 목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II 《테라인포밍》 The 12 <sup>th</sup> Seoul Mediacity pre-Biennale II <i>TERRAINFORMING</i>
시 간	2022.12.10(토) ~ 12.11(일) 18:00~
장 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프로젝트갤러리
종 류	강연, 발표, 대화, 사운드 퍼포먼스, 비디오 스크리닝, 라디오 청취 등
참여자	강민형, 권동현x권세정, 권진, 나도, 니샤트 아완, 라디오 EE, 레이첼 레이크스, 세바 칼푸케오, 소피아 듀론, 왕보, 자이 탕, 최찬숙, 켄트 찬, 홍철기

- 2023년 9월 개막하는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에 관한 생각과 이해의 방법을 공유하고 예술적 실천과 미학을 예고하는 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II 《테라인포밍》 개최
- 프로그램 제목은 ‘영토적인’을 의미하는 테라인Terrain과 ‘형성하다’라는 포밍Forming의 합성어로 기존의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조건을 미디어로 접속하여 새로운 예술-사회적 연결성을 제시
- 강연과 대화, 청취와 비디오 작품을 통해 땅과 정체성, 네트워크, 지역성, 이주 등의 시대적 화두를 비영토적인 차원으로 탐구

- 서울시립미술관(관장 백지숙)은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II 《테라인포밍》을 개최한다. 본 프로그램은 내년에 개막하는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에 관한 생각과 이해의 방법을 공유하고 예술적 실천과 미학을 예고하는 시간으로, 2022년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프로젝트갤러리에서 진행된다.
-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주최하고 운영하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지난 25년간 미디어로 상징되는 미술의 동시대성과 실험성을 주목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서울시의 주요한 현대미술 행사다. 1996년부터 세 번 개최되었던 《도시와 영상》 전시에서 서울과 미디어에 대한 실험을 나누기 시작했고, 이후 2년마다 열리는 비엔날레 형식으로 시대를 대변하는 다양한 생각과 활동을 담아왔다.
- 지난 9월 선임된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예술감독 레이첼 레이크스(Rachael Rakes)가 기획한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의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조건을 미디어로 접속하여 새로운 예술-사회적 연결성을 제시한다. 나아가, 도래하는 지구상의 삶을 예견하는 비영토적인 방법과 관점을 공유한다.
- 강연, 발표와 대화로 구성된 첫째 날 ‘모으기, 교차하기’는 공간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재-시각화하는 사례와 생각을 소개한다. 프로그램의 화두는 두만강, 콘크리트 미술, 남한에서 독일까지 그려진 비가시적 경계, 이미지 기록의 맵핑, 비공간적인 지역성, 그리고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에의 도전까지를 아우른다.

□ 사운드 퍼포먼스, 비디오 스크리닝과 라디오 청취로 구성된 둘째 날 ‘감각하기, 재위치하기’는 특정 장소와 역사를 교차하는 청각과 시청각 작품을 통해 어떻게 지역, 공간, 사람과 움직임이 재현되는지, 그리고 지역과 위치를 벗어난 주체성의 대안적 형태를 주목해 본다. 프로그램에서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구성하는 현실에 관한 감각을 재조정하는 비디오 작품을 스크리닝한다. 나아가 다른 공간의 존재, 혹은 도래하는 실제에 관한 증거로서 사운드와 음파 전송, 혹은 시각을 예보하는 음속을 소개한다.

□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이번 사전프로그램은 동시대의 초국가적인 지정학적 환경을 어떻게 감각하고 어떻게 언어화할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로, 다가오는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에 관하여 가깝게 알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본 프로그램은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현장 프로그램으로만 진행된다. 일부 프로그램의 기록 영상은 프로그램이 끝난 후 비엔날레와 미술관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다.

□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주요 개념, 세부 내용과 참여작가는 2023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홈페이지 <https://mediacityseoul.kr>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eoulmediacitybiennale](https://www.instagram.com/seoulmediacitybiennale)

○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및 대표 소셜미디어

홈페이지                    <https://sema.seoul.go.kr/>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eoulmuseumofart](https://www.instagram.com/seoulmuseumofart)

트위터:                         [twitter.com/SeoulSema](https://twitter.com/SeoulSema)

페이스북:                      [facebook.com/seoulmuseumofart](https://www.facebook.com/seoulmuseumofart)

유튜브:                         [youtube.com/seoulmuseumofart](https://www.youtube.com/seoulmuseumofart)






# [별첨 1]

## 1. 프로그램 일정표

12월 10일(토)			12월 11일(일)		
시간	'모으기, 교차하기'		시간	'감각하기, 재위치하기'	
18:00 - 18:10	발제	소개 권진 (서울시립미술관 비엔날레 프로젝트 디렉터)	18:00 - 18:10	발제	소개 소피아 듀론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협력큐레이터)
18:10 - 18:30	발표	이것 역시, 하나의 지도이다 레이첼 레이크스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예술감독)	18:10 - 18:15	청취 세션	<침전물 관찰_시선 I> 나도
			18:15 - 18:20	비디오 스크리닝	<마푸 쿠폴(육지 해산물)> 세바 갈푸케오
18:30 - 18:50	발표	탈 현지화 신드롬 강민형 (공간 바림 디렉터)	18:20 - 18:45	비디오 스크리닝	<폭염> 켄트 찬
18:50 - 19:20	발표	공간적 지각에 관한 대화, 《정거장》 작품에서 배우기 권진, 홍철기(작가)	18:45 - 19:05	사운드 퍼포먼스	<탈출 속도 V(솔로 버전)> 자이 탕
			19:05 - 19:20	비디오 스크리닝	<세디: 도도를 만나는 방법> 권동현x권세정
19:20 - 19:50	토론	사회: 레이첼 레이크스, 소피아 듀론 참여: 강민형, 권진, 홍철기	19:20 - 19:40	라디오 청취	<지도가 되는 라디오> 라디오 EE
19:50 - 20:10	휴식		19:40 - 20:10	토론	사회: 권진, 레이첼 레이크스 참여: 권동현x권세정, 자이 탕
20:10 - 20:30	발제	산과 물: 두만의 다양한 기억들 왕보(작가)			
20:30 - 20:50	발제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밀려나고 새어나오는. 최찬숙(작가)			
20:50 - 21:10	발제	변위의 건축들 니샤트 아완 (연구자)			
21:10 - 21:40	토론	사회: 레이첼 레이크스 참여: 니샤트 아완, 왕보, 최찬숙			

## 2. 주요 이미지

※ 모든 이미지는 사진 정보의 정확한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경 사진	사진 정보
	<p>백두산 천지 위의 관광객들, 2018. 사진: 루샤오쉬안, 왕보 제공</p>
	<p>최찬숙, &lt;qbit to adma&gt; 스틸, 2022, 4채널 비디오 설치, 사운드, 36분. 작가 제공</p>
	<p>켄트 찬, &lt;폭염&gt; 스틸, 2021. 비디오, 21분 20초. 작가 제공</p>
	<p>권동현x권세정, &lt;세디: 도도를 만나는 방법&gt; 스틸, 2021. 단채널 비디오, 4K, 15분 16초. 작가 제공</p>
	<p>세바 칼푸케오, &lt;마푸 쿠틀(육지 해산물)&gt; 스틸, 2020. 3D 비디오 애니메이션, 사운드, 5분 30초. 3D 레지스터: 발렌타니 리켈메. 작가 제공</p>

### 3. 참여자 소개

#### 강민형

큐레이터, 통번역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공간 바림의 디렉터(2014~ ) 등 시각예술의 다양한 위치에서 활동 중이다. 탈중심적 예술 실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고 거주하면서도 해당 지역성에 얽매이지 않고 예술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한다. 초지역성과 자율성을 디지털 기술의 문맥에서 읽고, 디지털 기술을 다루는 예술의 다른 형태를 고민하는 플랫폼 《DEGITAL》을 기획했으며, 플랫폼 『포킹룸』의 운영 멤버이기도 하다.

#### 권동현×권세정

권동현×권세정은 2020년부터 협업을 진행했다. 조각, 설치, 비디오 매체를 아우르며 독립적으로 활동해 온 이들은 협업을 통해 서로의 작업에 침범하고 교차하며 제3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권동현×권세정의 공동 작업은 도시 공간 속에서 인간과 비인간 그리고 인간이 만나며 생성되는 물성과 감정을 관찰하며 이를 입체적 작품과 영상으로 옮긴다.

#### 권진

권진은 아프리카 미술사와 디지털 문화사를 전공하고 2007년부터 서울에서 미술 활동을 시작했다. 언어로서의 미술과 미술의 초국가적 언어화에 관심을 가지고 아르코미술관(2007-2009), 제4회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2012-2014), 서울시립미술관(2016-현재)에서 재직했다. 안상수 개인전 《날개.파티》(서울시립미술관, 2017), SeMA 비서구권프로젝트 남미현대미술전 《미래과거를 위한 일》(서울시립미술관, 2017), SeMA 비서구권프로젝트 중동현대미술전 《고향》(서울시립미술관, 2019-2020) 이불 개인전 《시작》(서울시립미술관, 2021)을 기획했고, 관련한 출판물 『미래과거를 위한 일』(서울시립미술관, 2017), 『고향』(서울시립미술관, 2021), 『이불-시작』(서울시립미술관, 봄디아 북스, 미디어 버스, BB&M 공동출판, 2021)에 편집과 필진으로 참여한 바 있다. 2021년부터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프로젝트 디렉터를 맡고 있다.

#### 나도

나도는 네덜란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이다. 사운드와 시각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선보이면서, 그는 전자음악가로 소개되기도 한다. 테크노와 레ιβ 문화를 경험한 이래로, 나도는 기계, 도시, 그리고 주변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동물적인 감각으로 사운드에 반응하는지에 매료되었다. 지구를 뒤덮고 있는 다양한 층위의 소음은 인류와 도시의 침전물이다. 그들이 채집한 소리의 범위는 엠비언트에서 급진성 혹은 폭력성까지 아우른다. 나도는 일렉트로닉 사운드와 조각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섞어내기도 한다. 이때 사운드는 공간을 일시적으로 점유했다가 사라지

는 방편이자, 관습과 기존 개념에 균열을 내는 방법으로서 사용되는데, 이처럼 경계에 구애받지 않는 사운드의 본질은 나도의 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도는 현재 네덜란드로 이주하여 일상의 주변에 감춰지거나 영향력 있는 사운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 니샤트 아완

니샤트 아완의 연구와 글쓰기는 예술과 건축적 실천 사이에서 이주와 변위의 개념을 통해 지정학과 공간 사이의 관계를 탐험한다. 그는 공간적 재현과 형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과 떨어진 장소들이 윤리적으로 맺는 관계의 형태를 목격하는 것과 그것의 한계간에 생겨나는 관계를 주목한다. 유럽연구위원회가 후원하는 프로젝트 《토폴로지 아틀라스》는 국경 보안을 마주하는 이주민들의 연약한 움직임이 그리는 반-지질학을 시각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 라디오 EE

《radioee.net》은 온라인에서 노마딕하게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라디오 방송국으로 유동성과 움직임에 관한 24시간 방송을 만들어왔다. 이들의 방송은 특정 장소를 청각적으로 그려내는 방법으로 교통, 이주, 환경변화, 지역의 목소리, 음악과 사운드에 관한 주제를 다룬다. 때로는 트럭, 자동차, 보트와 자전거에서 처럼 이동을 하는 중에 방송을 만들기도 한다. 개별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전지구적 청취자와 연결되어 있으며, 지역의 방송국이나 온라인 플랫폼과 공동 제작하기도 한다. 아우구스티나 우드게이트, 스테파니 셔먼, 그리고 헤르만 우드게이트가 《radioee.net》의 공동 제작자이다.

## 레이첼 레이크스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예술감독 레이첼 레이크스는 큐레이터, 저술가, 교육자로 협업과 리서치를 기반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까지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BAK(Basis voor actuele kunst)에서 공공프로그램 큐레이터로 재직(2019-2022)했고, 그전에는 암스테르담 드 아펠의 큐레토리얼 프로그램 책임 큐레이터와 매니저를 역임(2017-2019)한 바 있다. 현재 뉴욕 링컨센터의 필름 프로그래머로도 활동하며 국제 페스티벌 《아트 오브 더 리얼》(2014-현재)을 데니스 림과 공동으로 조직하고 있다. 플랫폼 『인프라소니카』에서 필자로 활동하며, 『베르소 북스』, 『부르클린 레일』, 『페미니스트 프레스』에서도 일을 했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공공 실천으로서 미술』(2021, BAK)와 『공공 실천』(2019, NAME/De Appel)의 공동 편집자이다. 작가 오니에카 이그웨와 라우라 우에르타스 밀란과 함께 리서치 및 큐레토리얼 콜렉티브 카운터 인카운터를 운영하고 있다.

## 세바 칼푸케오

세바 칼푸케오는 칠레 산티아고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미술가이자 Espacio 218의 큐레이터이다. 그녀는 Rangitūlewfū 마푸체 공동체와 매거진 『Yene』의 일원이기도 하다.

마푸체 출신인 작가는 자신의 문화유산에서 출발하여 현재 칠레 사회에서 마푸체라는 주체가



가지는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지위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제시한다. 작가는 설치, 도예, 공연,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토착적 사고방식과 서구적 사고방식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고정관념을 비롯한 문화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탐구하며, 페미니즘과 성차별주의에 관한 문제들을 가시화한다.

칼푸케오의 작품은 카디스트(파리), 히우그란지두술 현대미술관(포르투알레그리), 칠레국립미술관(산티아고), 칠레현대미술관(산티아고) 등에 소장되어 있다. 최근에는 Galería de Arte Patricia Ready(산티아고 수도주), Galería 80m2 Livia Benavides(리마), Galería Metropolitana(산티아고 수도주)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다.

2017년에 산티아고 지방자치단체상을, 2018년에는 FAVA 재단상을 수여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뉴욕 아이빔이 주최하는 The Democracy Machine: Artists and Self-Governance in the Digital Age상을 수상하였다.

## 소피아 듀론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협력큐레이터 소피아 듀론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활동하는 독립 큐레이터, 연구자, 그리고 작가이다. 라틴아메리카의 탈식민적 관점과 포스트휴머니즘 철학 사이의 관계, 무의식의 탈식민화 개념, 생태적 사고, 그리고 예술적 실천과 관행을 연구한다. 나아가 식민지 장치로서의 미술관 패러다임에 주목하는 동시에 현대 보편주의적 박물관 규범을 탈피하는 대안적 계보에 관한 모색의 일환으로 지역 예술기관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소피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La Ene-Nuevo Museo Energía de Arte Contemporáneo(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공동운영자였고, 부에노스 아이레스 현대미술관의 큐레이터로 재직하였다. 미술사와 경영학 학사 학위와 라틴아메리카 미술사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8/2019년 드아펠 큐레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019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국제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년에는 ICI의 보고타 큐레토리얼 인텐시브에 참여하였다.

최근 참여한 프로젝트로 《자연 그 후》(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테바 2022), 호아킨 보즈의 《Caudal》(부에노스 아이레스 Barro, 2022), 《Temporada Fulgor. Foto Estudio Luisita》(부에노스 아이레스 라틴아메리카미술관, 2021), 《가까운 미래의 신화》(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0 / 부에노스 아이레스 추모공원, 2022), 《꿈이 있는 풍경》(암스테르담 드아펠, 2019), 엘바 바이론의 《무제》(부에노스 아이레스 현대미술관, 2017) and 《Avello: joven profesional multipropósito》(부에노스 아이레스 현대미술관, 2017) 등이 있다. 벨키스 아온, 로라 코데가, 애드 미놀리티, 호아킨 보즈, 디노라 파스토렐로, 후안 델 프레트, 호르헤 레사마, 에드가르도 비고, 헤르난 소리아노, 마르타 미누진과 같은 작가들에 관한 출판물에 에세이를 기고한 바 있다.

## 왕보

왕보는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영화 제작자 및 연구자이다. 그의 작품들은 뉴욕의 구겐하임미술관 및 현대미술관, 모스크바의 개러지뮤지엄, 《로테르담국제영화제》, 도쿄의 《이미지포럼페스티벌》, 스위스 니옹의 《비전뒤릴》, 런던의 럭스와 《오픈시티다큐멘터리페스티벌》, 광주의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싱가포르미술관, 홍콩의 파라사이트를 포함한 여러 기관과 플랫폼에서 전시된 바 있다. 2013년 로버트 플래허티 영화 세미나에서 펠로우십을 받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라익스아카데미와 2016년 난양공과대학교 현대미술센터에서 입주 작가로 활동했다. 현재는 암스테르담 대학의 암스테르담 문화분석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 자이 탕

자이 탕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다원예술가이다. 음향 생태학과 현상학, 전자 및 실험 음악의 영향을 받은 그의 작업은 듣는 것이 우리가 거주하는 세계와 조화하고 보다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귀중한 수단이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자이는 시각 예술가, 영화 제작자, 안무가, 연극인 및 다른 음악가와 함께 협력하기도 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작곡가, 사운드 디자이너, 음악가의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싱가포르국립미술관(2021), 《태국비엔날레 코랏》(2021), 《레이카비크국제영화제》(2021), 도쿄 NTTICC(2020), 레이 하야마와 함께 한 《부산비엔날레》(2020), 《싱가포르비엔날레》(2019), 사이먼 볼과 함께 한 《싱가포르국제영화제》(2019), 《제2회인촨비엔날레》(2018), 엠마누엘 푸온과 함께 한 《뉴욕단스페이스프로젝트》(2018) 등에 참여한 바 있다. Migrant Ecologies Project의 <{미끼가 노래를 할 수 있다면 야생의 것이 올 것이다} 나뭇잎 사이의 그림자처럼>은 《오버하우젠국제단편영화제》(2021)에서 국제영화비평가연맹상을, 《싱가포르국제영화제》(2021)에서 최우수 싱가포르 단편영화상을 수상하였다. 2022년에는 피켓플란츠 댄스 컴퍼니와 함께 <No.60> 교토의 림 시어터, 베를린의 탄츠 임 아우구스트, 오슬로의 단센스 후스, 우메오의 노를란즈오페라, 싱가포르의 단스 페스티벌, 자카르타의 IDF에서의 공연 투어에 참여하고 있다.

## 최찬숙

이동과 새어나온 몸을 주제로 공감각적 시각언어를 구축해 온 최찬숙은 예술적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서사학적 실험을 전시, 퍼포먼스, 공연, 등의 다학제적 방법으로 선보이고 있다. 뮌헨포럼베를린(2017), 아트선재센터 프로젝트스페이스(2017), 타이베이 디지털아트센터(2020) 등에서 개인전을 가진 바 있으며, 서울시립미술관의 《신진미술인 전시지원 프로그램》(2017), 현대자동차 VH AWARD(2019), 독일연방 Kunstfond 재단 시각예술지원상(2021) 등에서 수상과 후원을 받은 바 있다. 다학제적 방법론을 통해 전시, 강연, 공연과 출판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작업을 서울 국립극장 국가브랜드 공연, 아르스일렉트로 니카, 볼스부어그 미술관, 베를린 상공회의소과 같은 플랫폼에서 소개해왔으며,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과 SBS가 주최하는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였다.

## 켄트 찬

켄트 찬은 네덜란드와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큐레이터, 영화감독이다. 그의 작업은 형식과 내용, 맥락에서 다공질적인 예술 실천의 삼두마차인 시각예술과 픽션, 영화와의 만남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특히 열대지방의 상상력, 더위와 미술 간의 과거와 미래의 관계성, 그리고 탁월한 인식론으로서 근

대성의 유산에 관한 논쟁에 관심이 있다. 필름, 텍스트, 대화와 전시 등 다른 이들의 작품과 활동은 종종 그의 작품에서 소재로 등장한다.

켄트 찬은 현재 참여 중인 런던의 가스워크레지던시(2022) 외에도, 안반에이크아카데미(2019/20), 싱가포르 NTU 현대미술센터(2017/19)와 루퍼트레지던시 프로그램(2015)에 참여한 바 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쿤스트인스티튜트멜리, 보너판텐미술관, 싱가포르 NUS 대학미술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드아펠, 그리고 슬로베니아 현대미술센터에서 개인전과 2인전을 개최하였다. 그의 작품은 《로테르담국제영화제》, 중국 타임즈미술관, 아이필름미술관, 암스테르담 스테들릭뮤지엄, 아르헨티나 BIENALSUR, 독일 세계문화의 집, 그리고 《부산비엔날레》에서 소개된 바 있다. 켄트 찬은 2021년 파운드워크 작가상을 수상하였고, 그의 작품은 네덜란드 라이스콜렉티브와 보나판텐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 홍철기

홍철기는 현대의 생활권에 있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풍경을 포착하여 사진과 영상으로 재현하는 작업을 만들어 왔다. 도시와 도시 주변 환경 속의 이질적인 존재들, 분류나 판단을 보류한 채 경계에서 부유하는 대상 등을 기록했던 일련의 프로젝트는 최근의 개인전 《맹지》(서울 합정지구, 2015), 《공중》(서울 산수문화, 2017), 《언저리》(서울 쇼엔텔, 2020)에서 소개되었다.

## 4. 프로그램 정보

- 시간: 2022. 12. 10.(토) ~ 12. 11.(일) 18:00 ~
-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프로젝트갤러리
- 언어: 한국어-영어 동시통역
- 신청: <https://forms.gle/vY7Pj1HZvD6LnuTD7> ※ 신청마감일: 12. 9.(금)
- 주최: 서울시립미술관

**기본 정보**

- 담당자: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프로젝트 디렉터 권 진  
(02-2124-8975/ [nakwonjin@seoul.go.kr](mailto:nakwonjin@seoul.go.kr))
- 홍보 문의: 교육홍보과장 봉만권(02-2124-8912/ [go1107@seoul.go.kr](mailto:go1107@seoul.go.kr))  
학예연구사 유수경(02-2124-8928/ [skyoo@seoul.go.kr](mailto:skyoo@seoul.go.kr))

**작품 이미지  
다운로드 방법**

- 서울시립미술관 웹하드 접속(<http://sema.webhard.co.kr>)
- 로그인(아이디 semapress, 비밀번호 sema)
- 이미지 다운로드([내리기전용] 폴더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폴더  
→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II 테라인포밍] 폴더)